

빛의

궤도

미디어 아트
키네티ック 아트
아나몰피 아트

G.MAP 21일까지
‘디지털아트 컬처랩’

다양한 장르 24개 작품
‘빛’으로 대상·현상 구현
디지털아트 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류 확대 집중

G.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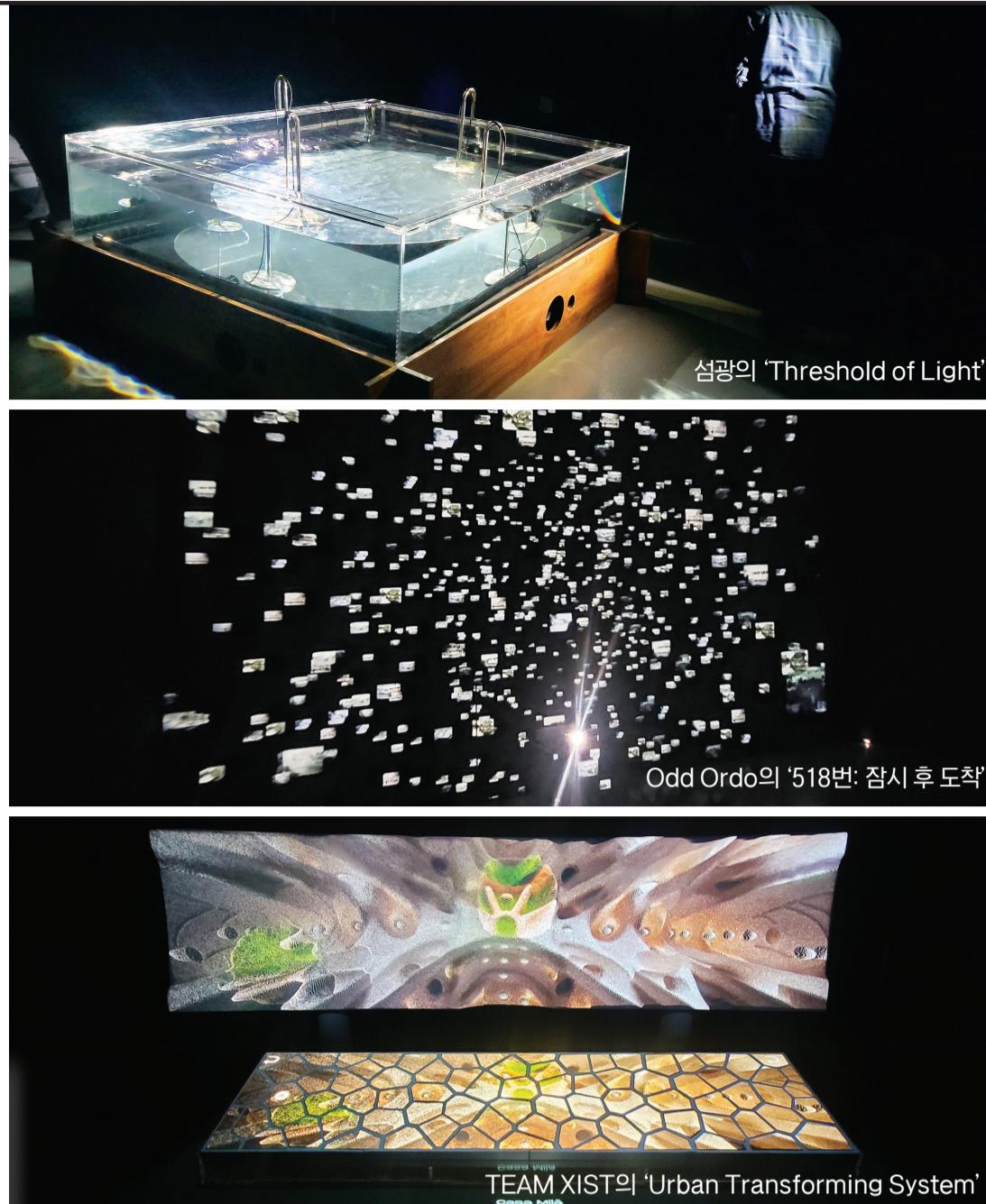
한해 마무리…12월에 만나는 다채로운 인문학 강좌

26일까지
전남대 정문 카페 노블
'영미철학' '인문학시' ...



광주시민인문학에서 진행된 에세이 창작반 강연 모습.

〈광주시민인문학 제공〉



빛은 역동적이면서도 가변적인 매개체다. 사물과 현상의 본래 모습뿐 아니라 이번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드러나게 한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다. 강렬한 빛은 대상을 가려 숨기기도 한다.

빛에 기술과 소리 등 타 요인들이 겹합되며 상상 이상의 효과가 발현된다. 예술가들이 빛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투영해 자신만의 창작활동을 펼치는 것은 그런 연유다.

빛이 단순한 시각적 현상을 초월해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비인간,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상호 침윤해 감각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김현경, 지맵, G.MAP)은 오는 21일까지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 결과물을 선보인다.

총 24팀이 24개 디지털 작품을 매개로 관객을 맞는다. 예비·신진 디지털 작가 8팀을 비롯해 글로벌 작가 2명이 프로젝트연구팀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인큐베이팅팀 소속 작가 14명이 합류, 디지털예술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보여준다.

‘빛의 궤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몰입형 영상예술(미디어아트), 동력 조형예술(기네티ック 아트), 착시입체 영상(아나몰피 아트) 등 장르가 다양하다.

박찬재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서 24개 팀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요소”라며 “프로젝트 팀들은 이중적 속성을 지닌 빛을 통해 대상과 현상을 새롭게 구현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빛은 기억과 감정, 감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빛에 소리의 요소를 가미하면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의 경계까지도 탐구할 수 있어 관객들은 해석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디지털 아트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 팀은 Hex Nut, 설광, TEAM XIST, Odd Ordo 미립틀, A.C.E, 소광단, Ray LC, Arief Budman 등이다.

Odd Ordo의 518번 버스 노선을 모티브로 한 ‘518번: 잠시 후 도착’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버스 노선의 데이터와 연계한 점이 흥미로웠다. 518번 버스는 금남로를 비롯해 옛전남도청, 전일빌딩 245, 5·18민주묘지 등 5·18 관련 장소를 운행한다. 항쟁의 상흔이 남은 공간을 따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경로가 주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

화면 속에 구현된 버스 경로는 보는 이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준다. 노선과 정류장이 내재하고 있는 아픈 상흔, 서사를 떠올리며 5·18의 의미 등을 사유하게 한다.

미립틀의 ‘무등 레이브’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서사를 이루는 단체의 정체성을 무등에 투영했다. 평등함의 의미가 깊은 무등에 레이브 문화를 입혀 인간과 비인간, 자연, 기술이 진동하는 공동체를 구현했다.

설광의 ‘Threshold of light’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대형 수조에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관람객은 작은 막대기

를 수조에 넣어 생성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김현경 센터장은 “이번 결과물들은 미디어아트 창의밸트와 지맵 영상벽에 선보여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디지털 아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류를 확대해 광주가 디지털아트의 중심 도시로 한자원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붉은 산수’에서 ‘자연적 이미지’로

이세현 개인전 ‘Beyond Red’
내년 2월22일까지 동곡뮤지엄

전통 산수화에 분단의 상흔을 표현해온 이세현 작가. 그는 산수 구도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기억의 산수’를 형상해왔다. 작품 속 붉은 풍경은 군복무 시절 야간투시경을 통해 바라본 비현실적 장면이 모티브가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접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그의 예술적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연유다.

이세현 작자가 광주에서 첫 개인전을 동곡뮤지엄에서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Beyond Red-기억증독’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모두 130여 점이 관객을 맞는다. 시대의 기억을 붉은색으로 묘사해온 연작 ‘비트윈 레드’를 포함해 초상화, 드로잉 등 모두 130여 점이 전시장에 걸린다.

작품은 ‘비트윈 레드’, ‘비온드 레드’ 30여 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두 연작은 전쟁과 분단이 환기하는 풍경에서 존재론적 정서적 풍경으로 나아가는 붉은 산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비트윈 레드’는 역사적, 사회적 산수에 초점을 맞췄다. 철책선, 초소, 포격 훈적으로 대변되는 분단의 현실을 붉은색으로 그렸다. 이 작가 작품 세계의 출발이자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비온드 레드’는 사회적 관점에서 우주적 사유로 확장한 작품이 중심이다. 빛, 바다, 고향은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감성을 떠오르게 하는 기제다.



‘Between Red’

언급한대로 이번 전시는 광주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한 작가의 첫 광주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에서 보여주는 붉은 산수의 근원과 확장된 세계를 지역 관광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개막일에는 작가 아트토크가 진행된다. 이 작가는 이 자리에서 ‘붉은 산수’를 모티브로 사유와 기억, 역사와 사회, 풍경과 장면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동곡뮤지엄 정영현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한때 붉은색이 상징하던 불온함을 넘어 붉은색이 어떻게 사유와 우주적인 색과 감성으로 확장되는지 보여준다”며 “광주에서의 첫 개인전인 만큼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광주와 연계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춤의 진수, 한 무대에…안무자전 ‘디딤’

국립남도국악원, 13일 진도진악당

안무가의 한 걸음이 무대에 닿는 순간, 전통춤의 숨결이 서서히 피어난다. 몸짓에 스민 슬픔과 한, 오래 품어온 그리움이 서로 다른 결의 춤사위로 번져 나가며 한 폭의 장면을 만든다.

다양한 한국 춤의 미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일환으로 안무자전 ‘디딤’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활동 중인 안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춤 여섯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첫 무대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복미경이 이끄는 ‘김수악류 진주교방굿거리’로 문을 연다. 경남 진주 교방에서 전승돼 온 입춤의 흐름과 굿거리 장단의 멎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품이다. 복미경은 국립국악원과 남도·민속국악원을 거친 베테랑 안무가로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 안명주가 두 작품을 무대에 펼친다. 먼저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절제된 동작으로 풀어낸 ‘이매방류 살풀이춤’, 그리고 호남 특유의 힘과 흐름을 간직한 ‘호남검무’가 이어지며 서로 다른 결의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다.

남도의 숨결을 담은 무대도 준비돼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안무자 박기량은 역동적인 ‘진도북춤’과 진도 씻김굿의 제의적 동작에서 모티프를 얻은 ‘복개춤’을 선보인다. 북을 활용한 박진감 있는 동작과 군무의 장엄함이 어우러져 남도춤 특유의 기운을 무대에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복미경의 '진주교방굿거리' 춤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득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 단원과 프랑스 국립 크리테유극장 안무가를 역임했으며 2024년 KBS 국악대상 무용상을 수상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국립부산국악원 안무자 박숙영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춤’이 장식한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선율 위에 춤사위를 더해 완성한 작품으로, 음악적 흐름을 몸의 결로 표현하는 섬세한 해석이 돋보인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무용수의 발디딤과 호흡이 만 들어내는 전통춤의 매력을 관객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흥이 낳은 가야금 명인, 최옥삼의 삶 무대로

음악창작극, 13일 장흥 빼빼용Zip

가야금 명인 최옥삼(1905~1956·사진)은 장흥에서 태어나 남도 음악을 바탕으로 남과 북을 넘나들며 민족음악의 토대를 다진 예인이다. 그의 연주는 묵직하면서도 섬세하고, 빠른 장단에서도 깊은 어운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최 명인의 삶을 무대에서 조명하는 음악창작극 ‘최 옥삼’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장흥 빼빼용Zip에서 열린다.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공연은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이어져 온 지역 예술사의 중요한 인물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시도다.

최옥삼은 13세 무렵 영암으로 건너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김창조에게 사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산회상’ 한 바탕을 통달해 ‘가야금 신동’으로 불렸다. 이후 군산·원산·마산·광주 등지에서 제자를 길러냈으며, 해방 직후 평양으로 가 최승희무용연구소에서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하며 북한 민족음악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그의 유산은 제자인 함동정월을 통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로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흥 출신인 그가 민족음악 사에서 남긴 죽적은 크지만, 고향에는 생가 터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 있어 제대로 된 기념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번 무대는 지역 문화자산을 되살리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은 최옥삼의 성장과 사사 과정, 남도 음악에 뿌리리를 둔 예술 세계, 해방 이후 남북을 넘나들며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유산을 계승해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 제작을 맡은 문화공감 예술과 창작공간 해우는 “지역이 품고자 대로 기억하지 못한 예인의 삶을 무대 위에서 되살리고자 한다”며 “이번 공연이 최옥삼 명인의 예술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